

안녕하십니까! 정보이사 임상열 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보고 드리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힘들게 만든 홈페이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정보이사에 위촉되고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를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신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더 홈페이지가 문제였습니다.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유령 홈페이지처럼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비용도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박영신 회장님, 최종숙 총무이사님, 손주연, 신미자 총무간사님의 도움과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기부해주신 김정희 박사님 덕분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상 어려움이 있었기에 홈페이지 개장 후 내용을 채워가면서 현재는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들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홈페이지의 근간을 이루는 프레임이 틀어져 메뉴를 눌러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한지 오래되다 보니 스마트폰 검색 및 이용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학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와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홈페이지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학회 홈페이지 수정 및 보완이 아닌 아예 새로운 홈페이지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심 후 진행한 개발은 다음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캐치프레이즈와 이미지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였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캐치프레이즈와 이미지 선정 작업과 동시에 홈페이지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사용 메뉴를 반영해 최대한 단순하게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추후 사진 및 글 수정이 용이하도록 쉬운 언어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7대 학회 2년이 지나고, 18대 학회에서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PC 화면에서 구연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상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는 PC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하셔도 왜곡 없이 잘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개편 홈페이지의 장점 중에 회원관리가 용이합니다. 전에는 오프라인 문서상에 명단으로 관리를 하였기에 온라인상 DB 연동이 불가능 하였지만 현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자의 DB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회원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회 회원님의 홈페이지 가입 및 참여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놓은 홈페이지라고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디자인과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홈페이지라도 찾는 사람이 많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면 홈페이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직까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님께서는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해주시고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남겨 정보 및 일상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정보이사 임상열 올림-